



# 韩语情态表达 教育研究

苑克娟 著

# 韩语情态表达 教育研究

苑克娟 著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语情态表达教育研究 / 苑克娟著. —上海: 华东理工大学出版社, 2019.11

ISBN 978-7-5628-6044-0

I. ①韩… II. ①苑… III. ①朝鲜语-口语-教学研究  
IV. ①H559.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9)第225076号

---

策划编辑 / 舒欣如

责任编辑 / 金美玉

装帧设计 / 徐 蓉

出版发行 / 华东理工大学出版社有限公司

地址: 上海市梅陇路130号, 200237

电话: 021-64250306

网址: [www.ecustpress.cn](http://www.ecustpress.cn)

邮箱: [zongbianban@ecustpress.cn](mailto:zongbianban@ecustpress.cn)

印 刷 / 江苏凤凰数码印务有限公司

开 本 / 890mm × 1240mm 1/32

印 张 / 7.625

字 数 / 196千字

版 次 / 2019年11月第1版

印 次 / 2019年11月第1次

定 价 / 78.00元

---

版权所有 侵权必究

현재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한국어교육의 연구자로서 문법 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 현대 교육의 큰 방향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 교육'에서 '열린 교육' '통합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 중심 교육'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지식의 주입, 암기, 모방하기,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직접 관찰하기, 탐구하기, 생각하기, 추리하기, 발견하기, 표현하기를 요구하는 활용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문법 교육도 따로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과 함께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 일치하다. 그러나 문법 교육을 따로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든, 다른 언어 영역과 함께 다루든 간에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교수·학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한국어 교육 학계의 숙제로 남아 있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서에서 한국어 양태표현이라는 목표 문법을 선정하여 양태표현 문법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여 문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문법 교육의 내용, 문법 교육의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저자는 한국어를 학습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권이 다르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언어권 별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교육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항상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대조 결과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본서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표현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목처럼 본서의 적용 대상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이고, 연구 내역은 한국어 양

태표현에 관한 것이다. 일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보람으로 여기고자 한다. 물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원, 그리고 한국어 문법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약간의 참고 자료라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본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양태표현 교육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 2 장에서는 양태표현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의하고, 양태의 개념, 유형 분류, 그리고 양태와 인접 문법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양태표현 사용 양상에 대해 파악하려고 했다. 제 4 장과 제 5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양태표현의 교육 내용, 교육 모형,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본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양태표현의 교육 내용 구축과 교육 방법 모색에 있다. 예전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습자들 모두 어휘나 문법 형태를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암기식 학습은 일대일의 대화 상황에서는 소통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언어 화용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는 교육 내용 구축 부분에서 문법의 형태와 의미뿐만 아니라, 담화 · 화용의 분야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이와 같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형태 · 의미 중심의 교수법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담화 기초 화용적 교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상숙이공대학교 (常熟理工学院)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고를 읽고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송홍규 교수님, 이애진 선생님, 라선정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나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9 년 9 월 1 일

저자 苑克娟 씀

## 제1장 서론 | 1

|                              |    |
|------------------------------|----|
| 1 문제제기 .....                 | 1  |
| 2 선행연구 .....                 | 5  |
| 2.1 국어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 .....    | 6  |
| 2.2 한국어교육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 ..... | 10 |
| 3 연구 범주와 구성 .....            | 17 |
| 3.1 연구 범주 .....              | 17 |
| 3.2 연구 구성 .....              | 19 |

## 제2장 양태표현 교육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2

|                              |    |
|------------------------------|----|
| 1 양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 22 |
| 1.1 양태의 개념 .....             | 22 |
| 1.2 양태의 범주와 분류 .....         | 34 |
| 1.3 양태의 의미 영역 .....          | 48 |
| 2 양태표현의 선정과 목록 생성 .....      | 51 |
| 2.1 선정 기준과 방법 .....          | 51 |
| 2.2 말뭉치의 생성과 목록 .....        | 55 |
| 3 양태표현의 화용론적 기능과 실현 양상 ..... | 63 |
| 3.1 ‘공손’과 관련된 화용론적 요인들 ..... | 63 |
| 3.2 양태표현의 공손성 실현 양상 .....    | 70 |

## 제3장 한·중 양태표현 대조 및 사용 양상 분석 | 76

|                              |    |
|------------------------------|----|
| 1 중국어 양태표현의 범주와 목록 .....     | 76 |
| 2 한·중 양태표현의 대조 분석 .....      | 80 |
| 2.1 형태·통사적 측면에서의 대조 분석 ..... | 81 |

|       |                             |     |
|-------|-----------------------------|-----|
| 2.2   | 의미적 측면에서의 대조 분석 .....       | 85  |
| 2.3   | 화용적 기능 측면에서의 대조 분석 .....    | 96  |
| 3     | 한국어 양태표현의 사용 양상 조사 분석 ..... | 100 |
| 3.1   | 조사 대상과 설문 가설 .....          | 101 |
| 3.2   | 설문지 구성과 실시 절차 .....         | 103 |
| 3.3   | 설문지 수집과 결과 분석 .....         | 106 |
| 3.3.1 | 분석 방법 .....                 | 106 |
| 3.3.2 | 분석 결과 .....                 | 108 |

#### 제 4 장 한국어 양태표현의 교육 내용 구축 | 124

|     |                            |     |
|-----|----------------------------|-----|
| 1   | 교육 내용 구축의 모형 .....         | 124 |
| 2   | 교육 내용 구축의 실태 .....         | 126 |
| 2.1 | 형태 · 통사적 측면에서의 내용 구축 ..... | 126 |
| 2.2 | 의미적 측면에서의 교육 내용 구축 .....   | 151 |
| 2.3 | 화용적 기능 측면에서의 내용 구축 .....   | 168 |

#### 제 5 장 한국어 양태표현의 교수 · 학습 방법 및 실제 구축 | 178

|     |                              |     |
|-----|------------------------------|-----|
| 1   | 양태표현 교육의 목표와 방법 .....        | 181 |
| 1.1 | 교육 목표 .....                  | 181 |
| 1.2 | 교육 방법 .....                  | 183 |
| 2   | 양태표현의 교육 모형과 수업 실제 .....     | 187 |
| 2.1 | PPP 모형에 의한 형태 · 통사적 교육 ..... | 188 |
| 2.2 | TTT 모형에 의한 의미적 구분 교육 .....   | 191 |
| 2.3 | 담화 기반 교수법에 의한 화용 기능 교육 ..... | 195 |
| 2.4 | 통합식 모형에 의한 문법 통합 기능 교육 ..... | 201 |



**제 6 장   결론 | 209**

|                       |     |
|-----------------------|-----|
| 1   연구의 결론 .....      | 209 |
| 2   연구의 한계성과 전망 ..... | 213 |

|                   |            |
|-------------------|------------|
| <b>참고문헌 .....</b> | <b>214</b> |
|-------------------|------------|

|                 |            |
|-----------------|------------|
| <b>부록 .....</b> | <b>225</b> |
|-----------------|------------|

|                              |            |
|------------------------------|------------|
| <b>부록 1: 설문 조사 동의서 .....</b> | <b>225</b> |
|------------------------------|------------|

|                              |            |
|------------------------------|------------|
| <b>부록 2: 설문 조사 평가지 .....</b> | <b>227</b> |
|------------------------------|------------|

# 제 1 장 서론

## 1 문제제기

양태(modality)는 전통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45)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태는 화자와 청자 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 문법적 수단으로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언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이를 학습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딱 맞게 말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은 양태라는 언어 현상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오류들은 특히 형태 구조가 복잡하거나 화용 전략 사용이 요구되는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양태표현은 다양한 언어적 형식으로 실현되고, 특히 구조적으로 구절성을 지닌 양태표현들이 사용될 때 형태·통사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만약에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용 제약을 모르고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을 보자.

- (1) 가. 제 동생은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 (√고 싶어 해요)(I-7#)

나. 비가 온다고 해서 축구 시험은 약속한 시간에 못 한 것 같아  
요.(×) (√할 것 같아요) (1-2#)

위에 제시된 예시처럼, 구조적으로 복잡한 양태표현들은 시제, 인칭 등 통사적 제약에 따라 그 구조와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약에 대한 사전 학습이 없으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형태·통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요구하는 ‘문법 형태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과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차원에서 볼 때, 학습자들에 의해 생산된 언어 표현들이 종종 주어진 상황에 적절치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표현이므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된다. 다음은 화용 전략 사용이 요구되는 거절 화행에서의 오류이다.

(2) 선배가 제주도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논문을 준비해야 하므로 갈 수 없다.

중국인 학습자: 선배님, 저는 논문 써야 해서 안 돼요. (II-2#)

모국어 화자: 선배님, 저는 논문 써야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위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말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듣는 상대방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의사소통 면에서 적절치 못한 발화가 된다. 이와 달리 모국어 화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느낌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곡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꽤나 고민스럽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문제를 교육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들 중에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은 많이 있으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담화·맥락적인 의존도가 높다. 즉, 상황에 따라 이런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여러 형식으로 실현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학습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실제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가 생긴다. 다음은 추측 표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3) 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켜네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켜네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올 것 같아요.

위의 예문(가)과 (나)에서 ‘-(으)르지도 모르다, -(으)르 모양이다, -(으)르 것 같다’는 모두 양태의 추측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서로 대치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서로 간에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으며, 특수한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적으로 사용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색한 대화가 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4) 가. (두 책을 다 읽어 봤는데), 이 책이 저 책보다 쉬운 모양이에요.(×)

나. (두 책을 다 읽어 봤는데), 이 책이 저 책보다 쉬운 듯해요./  
것 같아요.(√)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두 책을 다 읽어 봤다”라는 부가적

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으)ㄴ 모양이다’의 사용이 어색하고, ‘-(으)ㄴ 듯하다’와 ‘-(으)ㄴ 것 같다’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맥락에서 각각의 표현은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어 학습 자료들에서 양태표현의 의미 차이에 관한 기술들은 내용적 한계가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양태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유사한 양태표현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문법 형태 사용이거나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의 화용 기능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종종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오류나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는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통의 장애로 이어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국어 양태표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 다.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한국어 양태표현의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가?
- 라. 실제 화행에서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양태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대인관계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교육해야 하는 양태표현의 내용을 구축하고,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가. 한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양태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검토하고,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한 양태표현의 목록과 의미 영역을 확정한다.
- 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표현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양태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양태표현의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 다.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양태표현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현재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의 양태표현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양태에 대한 연구와 국어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범주에 적용하는 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와 한국어교육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1</sup>.

1 국어학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주로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어교육학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두 용어가 지향하는 대상이 다르고 연구 영역도 다르다.

## 2.1 국어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

국어학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양태와 기타 관련 범주의 구분 및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여 양태의 범주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태의 의미 영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연구이다.

국어학에서 양태(modality)에 대한 논의는 이정민(1973, 1975)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양태를 ‘생각의 양태(modality of thinking)’와 ‘의지의 양태(modality of volition)’ 두 가지로 나누었다. 여기서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로 ‘-겠-, -을 것이-, -으려고 하-, -을게, -오마, -을까’ 등을 다루었다(박재연, 2006 참고). 이후 장경희(1985)는 양태의 범주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양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이외에도 국어의 양태 체계 전반을 다룬 박사 학위 논문은 이효상(1991), 조일영(1995), 박재연(2004), 정혜선(2013) 등이 있다. 양태 의미의 일부를 다루는 석사 논문에는 손현선(1998), 정유남(2006), 정희숙(2013) 등이 있다. 양태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많은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고영근(1986), 서정수(1990), 장경희(1995, 1998), 신창순(1997), 조일영(1995, 1998), 이필영(1998, 2004, 2006), 이선웅(2001), 임동훈(2003, 2008) 등이 있다. 이들은 국어의 양태 범주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개별적인 양태 문법 요소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어의 양태 범주 설정과 관련된 논문은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나 여전히 양태의 범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

는 실정이다. 양태의 범주에 대해 논의한 고영근(1986)은 서법을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연관되는 의미 영역인 “일정한 동사의 활용형을 구현하는 문법 범주로” 파악하였고, 양태는 “서법 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는 국어 양태 범주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시기 이후에 발표된 논의들은 연구자에 따라서 양태를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입장과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국어 양태를 광의의 범주로 쓰는 연구는 신창순(1997), 조일영(1998), 이선웅(2001) 등이 대표적이며,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문장을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5) 가.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가셨겠다.

나. 가족조차 그의 곁을 떠났다.

신창순(1997)과 조일영(1998)은 양태를 광의의 의미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문장을 [명제+양태]의 형식으로 파악하였으며 문장의 서술부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문법 형식을 양태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서 위의 문장 (가)에서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가-’가 표현하는 명제에 덧붙인 문법 요소에는 ‘-으시-, -었-, -겠-, -다’가 있는데, 신창순(1997)과 조일영(1998)에 의하면 이런 문법 요소들이 표현하는 의미 전부가 모두 양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선웅(2001)도 넓은 의미에서 양태의 범주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는 ‘-으시-, -었-, -겠-, -다’ 중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었-’을 제외한 ‘-으시-, -겠-, -다’가 표현하는 의미를 양태의 범주 안에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나)에서 ‘-조차’와 같이 특수 의미를 표현하는 보조사도 양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윤석민(2000)도



‘-겠-’이 표현하는 의미와 ‘-다’가 표현하는 의미를 통합적으로 양태라는 범주에 들어온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겠-’은 ‘서법’을, ‘-다’는 ‘문장종결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양태를 서법과 문장종결법의 상위 범주로 규정하였다.

양태의 범주를 협의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연구에는 장경희(1985, 1998), 고영근(1986, 2004), 임동훈(2003) 등이 있다. 이들은 (가)의 문장에서 ‘-겠-’이 실현하는 의미만을 양태로 본다. 또한 평서문 종결어미 ‘-다’가 표현되는 문장종결법과 분명히 구분하였다. 장경희(1985)에서는 양태와 서법을 구분하였고, 여기서는 ‘-겠-, -더-’ 등 선어말어미를 양태 범주에 속하다고 주장할뿐더러, [감탄]이나 [확인]의 의미를 표현하는 ‘-구나, -지’ 등 종결어미까지도 양태로 보았다. 박재연(2004)은 박사 논문에서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어 어미의 양태 체계와 의미 영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에서 양태를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분류하였고, 각각 분류에 들어가는 양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제시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 영역과 용법 제약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 양태 범주의 규정과 양태 어미의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논문에서 국어 어미의 양태적 의미를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미 학습에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상의 검토에서 국어학에서 양태의 범주에 관한 연구가 어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국어학에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구성, 의존 용언 구성 등 보문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어 보문 구성의 양태 의미 범주를 다루었던 대표적인 연구에는 김지은(1997, 1998), 방성원(2001), 김진웅(2003), 문병열(2006) 등이 있다.